

세상에는 남이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
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.

알베르 기농



세상에는 남이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
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.

세상에는 남이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
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.

세상에는 남이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
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.

세상에는 남이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
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.
